

종교와 마음

-인지종교학의 주제와 경향을 중심으로-

박 종 천

주제분류 인지과학, 종교학, 인지종교학, 인식론

주요어 인지종교학, 인지, 마음, 종교, 종교적 표상, 종교의 자연성 테제, 인지최적화효과, 최소한도의 반직관성, 자연주의적 오류, 환원주의, 기억, 동기부여, 종교성의 양태

요약문

최근 컴퓨터공학, 뇌과학, 신경과학 등의 과학적 연구성과들을 기반으로 삼아 언어학, 심리학, 인류학 등의 새로운 학제적 연구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인지과학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인지과학적 연구는 전통적으로 과학의 척도를 가장 분명하게 거부했던 종교의 영역에도 적용되어 인지종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지종교학의 현황과 사상사적 배경 및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종교적 표상과 인지최적화효과, 종교적 행위와 의례, 종교성의 양태와 사회문화의 역동적 구조의 관계 등 인지종교학의 중요 이슈들을 소개하며 이론적 함의와 가능성을 비평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인지종교학은 인지과학의 이론적 성과에 근거하여 특정 종교전통을 넘어서서 종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설명의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특히 종교의 자연성 테제에 근거하여 종교를 마음의 차원으로 환원하여 종교가 두뇌 기능의 부산물로 간주함으로써 종교와 연관된 인지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관점은 직관적 존재론과 인지최적화효과 등의 개념을 통해 종교적인 인지와 행위를 일반적인 인지와 행위 가운데 “최소한도로 반직관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종교적 인지와 행위를 일반적 인지와 행위와 질적으로 다른 특수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 기존의 종교학적 관점에 전면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종교적 현상을 일반적 인지와 행위의 범주 내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문화를 자연으로 환원하는 환원주의 또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인지종교학은 해석학적 종교현상학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지종교학은 인지적 측면에서 심리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체계적 개념 분류와 보편적 이론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했다. 종교의례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종교문화가 기억과 동기부여의 모순을 해결하면서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탐색함으로써 구축된 종교성의 교리적 양태와 이미지적 양태의 분류는 특정한 종교성의 양태가 지닌 심리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대담한 가설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구체적인 종교현상에서 수많은 예외를 만나게 되므로, 엄밀한 종교사적 연구에 의해 정밀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인지종교학은 지나치게 서구 기독교 모델에 치우친 종교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지종교학적 결론은 유교나 불교 등 동양 종교에 적용될 때 일정한 오류와 한계를 지니게 된다. 다양한 종교 자료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자료수집 단계에서부터 요구되는 대목이다.

넷째, 현재 인지종교학은 종교를 두뇌활동의 부산물로 산출되는 부수적 실재로 보면서 역사적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방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현상을 두뇌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 마음과 세계를 연결시키는 신체, 신체가 활동하는 환경으로서의 사회가 시간과 공간의 축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구성적 실재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1. 인지종교학의 시대

1990년을 전후로 하여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근 20년동안 종교학(Religious Studies)에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학문적 흐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지종교학’(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CSR)으로 불리는 새로운 접근은 인간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인지’(cognition)를 중심으로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성과¹⁾를 활용하여 종교를 ‘마음’(mind)의 작용으로 ‘설명’(explain)하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다.

하버드(Harvard) 대학의 로렌스 설리번(Lawrence Sullivan) 교수가 1998년 미국종교학회(AAR)의 회장 취임 연설에서 뇌과학(brain science)이나 신경과학(neuroscience)이 앞으로 종교학에 미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종교의 자연과학적 기초에 대한 전망은 이미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 예컨대, 뇌과학 혹은 신경생물학을 활용하여 불교의 명상수행시 마음의 의식상태를 분석하는 목격한 저술들은 종교적 마음에 대한 자연과학적 설명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²⁾

나아가 인지언어학, 인지인류학, 인지심리학 등을 중심으로 학제적으로 형성된 인지과학의 이론적 도입은 최근 종교학에 새로운 이론적 지평을 열어준 사건이다. 종교학의 학설사를 정리한 서적 중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시리즈로 유럽에서 기획된 『종교학의 고전적 접근』(Waardenburg 1973)과 『종교학의 현대적 접근』(Whaling, 1983/1995)의 전통을 이어받

1) 인지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로는 Paul Thagard (ed.), *Mind Readings: Introductory Selections on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8), Paul Thagard, *Mind: Introduction to Cognitive Science*, 2nd edi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5) 참조.

2) Robin Cooper, *The Evolving Mind: Buddhism, Biology, and Consciousness* (Birmingham: Windhorse Publications, 1996), James H. Austin, *Zen and the Brain: Toward an Understanding of Meditation and Consciousness*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8) 등이 대표적이다.

은 『종교학의 새로운 접근』(2004)에서 기어츠(Armin W. Geertz)는 “종교학에서 최근 15년동안 가장 활기찬 발전의 하나는 인지이론(cognitive theory)의 적용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인지종교학은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을 주목받았다.³⁾

인지종교학은 아직 20년도 채 안되는 학문의 형성기에 불과한 신생학문이지만, 현재 각종 학술대회 개최, 연구기금의 마련, 학회 조직, 활발한 저술 활동들을 통해 급속하게 그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인지종교학자들은 알타미라출판사(Altamira Press)와 캠브릿지대학교출판부(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중심으로 인지종교학총서 시리즈와 각종 단행본들을 간행하고 있고, 2004년 설립된 북아일랜드의 퀸즈대학교(Queen's University Belfast)의 ‘인지와 문화 연구소’(The Institute of Cognition & Culture)에서는 『인지와 문화 저널』(*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을 꾸준히 발행하고 있으며, 존 템플턴 재단(John Templeton foundation)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인지종교학 프로젝트와 영국 학술원 기금으로 운용되는 종교성의 양태에 대한 네트워크 프로젝트 등이 추진중이다.

현재 선도적으로 인지종교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바렛(Justin L. Barrett)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인지종교학의 현황과 발전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15년전만 해도 인지종교학과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한줌의 학자들이 독자적으로 종교를 연구하는 데 인지과학의 통찰을 사용했을 뿐이다. 오늘날 인지종교학은 수십권에 이르는 저술들,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학문적 단위들과 센터들, 그리고 100여명의 회원이 모인 학회 등을 자랑한다.”⁴⁾

3) Armin W. Geertz, “Cognitive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in Peter Antes and Armin W. Geertz and Randi R. Warne (eds.),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Vol.2: Textual, Comparative, Sociological, and Cognitive Approaches* (Berlin: Walter de Gruyter, 2004), 347쪽.

4) Justin L. Barrett,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What Is It and Why Is It?”, *Religion Compass* 1(2007), 1쪽. 인용문에서 언급하는 학회는 최근 유럽을 중심으

최근 인지종교학은 종교현상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치중했던 종교현상학, 종교의 문화적 차원을 설명했던 종교인류학, 특정한 종교경험과 연관되는 심리를 분석했던 종교심리학을 넘어서서, 두뇌와 신경을 중심으로 하는 생물학적 차원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삼아 마음의 인지와 감정이 종교적 사유와 행동에 반영되는 과정과 방식을 규명하고, 그 결론 위에서 다시 심리적 차원을 사회문화적 차원과 연결시켜 해명하고자 하는 거대한 기획을 통해 종교의 자연적 토대를 밝히는 작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종교학 이론이 종교를 이루는 구성요소 중 신념과 실천 및 공동체가 각각 신화학(mythology)과 의례학(ritual studies) 및 종교사회학(sociology of religion) 등으로 더욱더 전문화되어 가는 흐름 가운데, 앞으로 ‘비교’를 방법론의 핵심으로 하는 비교종교학(comparative study of religion)과 ‘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인지종교학이 종교학 이론 분야에서 미래의 쌍두마차가 될 날이 올 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인지종교학이 등장하고 전개되는 사상사적 배경을 짚어보고, 기존의 종교학과 구분되는 인지종교학의 이론적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인지종교학에서 다루었던 중요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종교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비평적 전망을 논의할 것이다.

2. 인지종교학의 사상사적 배경과 이론적 특징

1) 인지종교학과 사상사적 배경과 전개

인지종교학의 출현은 1950년대 이후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

로 조직된 국제인지종교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IACSR)를 가리킨다. 이 학회는 현재 공식 홈페이지(<http://www.iascr.com/>)를 운영하며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에 따르는 ‘고전적 인지주의(cognitivism)’를 배경으로 하여 시작된 인지과학의 발전의 토대 위에서 1990년대 이후 인지언어학, 진화심리학, 인지심리학 등을 종교에 대한 설명에 방법론적으로 활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인지종교학의 출현과 전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사상사적 배경이 되는 인지과학의 발전과정과 그 성과를 수용하는 인지종교학의 동향을 연관 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

인지종교학의 배경이 되는 인지과학의 전개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줄기의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고전적 인지주의’(혹은 계산주의)는 컴퓨터(Computer)의 개발에 발맞추어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으로 이루어진 기호들의 통사적 규칙이 작동되는 계산(computation)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A. I.)의 가설을 전개함으로써 언어적 표상에 대한 형식적 추론에 따라 정보의 정확성과 동일성을 확인하려 하였다. 이에 반해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 모델이 아니라 생물학적 모델로 이해하고자 한 ‘연결주의’(connectionism)는 뇌신경에서 작동하는 시냅스의 연결방식을 모델링한 신경망의 구성원리에 따라 지각의 규칙성과 안정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진화생물학자 에델만(Gerald M. Edelman)의 ‘개체군 사유’(population thinking)에 입각하여 다양성의 원천이 되는 변이(variation)에 따른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을 지지하면서 뉴런(neuron) 내의 개체군들이 생리적 기반인 시냅스 변화를 통해 지니게 되는 역동적인 속성을 기억으로 설명하는 신경생물학적 ‘선택주의’(selectionism)가 제시되었다. 최근 바렐라(F. Varela)를 중심으로 발제 이론(enactive theory)을 역설하는 학자들은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 개념을 통해 종래 접근과는 달리 지능(intelligence)이 아니라 의식(consciousness)과 지향성(intentionality)을 주목함으로써, 뇌구조의 신경생물학적 변화는 행위와 경험의 변화로 드러나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인지

5) 이하 인지종교학과 인지과학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구형찬, 「종교연구의 방법론적 범주에 관한 고찰: 비교, 분류, 설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58-76쪽에 따랐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인지종교학의 동향과 성격에 대해 소개한 첫 번째 작품으로 주목할 만하다.

의 순환성을 강조하는 한편, 인지현상이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인지구조와 환경의 만남을 통해 발생하는 긴장상태에 이르러 뉴런들의 상호공조체계가 중앙통제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창발’(emergence)을 역설했다.

“지난 50년 동안 과학 분야에 하나의 혁명이 생겼다는 것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이 혁명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마음(mind)에 대해 이론화하는 방식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안하는 수단도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혁명의 맥락에서 등장한 인지 과학은 인지심리학, 인지인류학, 언어학, 인공지능(A.I.), 철학, 신경과학 및 컴퓨터과학에서 제공되는 인간의 인지(cognition)에 대한 특정한 설명적 이론들을 통합하고 추출하며 확장시켜 왔다. 그것은 비교종교학의 맥락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하였다.”⁶⁾

이런 배경 아래 인지종교학은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과 인공지능(A. I.)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시작된 인지과학적 업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했다.⁷⁾ 인공지능모델에 따라 종교적 인지를 분석한 연구,⁸⁾ 연결주의에 입각한 인지종교학적 연구,⁹⁾ 선택주의적 관점에서 특정한 종교적 표상 유형이 선택적으로 우위를 지니면서 특정 문화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확산되는지를 설명하려는 연구¹⁰⁾ 등이 나타났으며, 인지주의적 관점과 선택주의적 방식을 특정한 맥락에서 조율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연구들도 상당수 등장했다.¹¹⁾ 후자의 경우는 마음을 모듈

6) E. Thomas Lawson, “Towards a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Numen* 47/3 (2000), 338쪽.

7) Jensine Andresen (ed.), *Religion in Mind: Cognitive Perspectives On Religious Belief, Ritual, and Exper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쪽.

8) William Sims Bainbridge, *God from the Machine: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of Religious Cognition*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2006).

9) Ilkka Pyysiäinen and Veikko Anttonen (eds.), *Current Approaches in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London: Continuum, 2002).

10) Ilkka Pyysiäinen, *Magic, Miracles, and Religion: A Scientist's Perspective*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2004).

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구형찬, 앞 논문, 76-85쪽 참조.

(module)로 구성된 컴퓨터처럼 여긴다는 점에서는 계산주의적이지만, 계산주의에 따라 종교적 의례를 언어능력과 같은 내재적 능력(competency)과 통사적 행위로만 국한시킬 경우에 의례의 행위체계를 규정하는 종교적 표상의 지식체계가 지닌 의미론적 충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의식하거나,¹²⁾ 종교적 표상의 문화적 확산을 선택주의적 방식으로 설명하거나,¹³⁾ 종교전통이 물질적-맥락(context) 구속적이라는 점에서 종교성의 양태가 사회정치적 역동성과 대응한다는 논지를 제기하는 연구도 있다.¹⁴⁾ 이렇듯 인지종교학은 인지과학의 다양한 흐름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면서 종교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을 특정한 차원 혹은 문제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정하며 새로운 견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인지종교학적 연구의 가장 큰 이론적 공헌은 종교라는 문화체

-
- 12) E. Thomas Lawson and Robert N. McCauley, *Rethinking Religion: Connecting Cognition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E. Thomas Lawson and Robert N. McCauley, *Bringing Ritual to Mind: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Cultural For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13) Pascal Boyer, *The Naturalness of Religious Ideas: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ascal Boyer, *Religion Explained: The Evolutionary Origins of Religious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2001). Dan Sperber, *Explaining Culture: A Naturalistic Approach* (Oxford: Blackwell, 1996).
- 14) Harvey Whitehouse, *Inside the Cult: Religious innovation and transmission in Papua New Guinea* (Oxford: Clarendon Press, 1995). Harvey Whitehouse, *Arguments and Icons: Divergent modes of religio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Harvey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 Towards a Cognitive Explanation of the Sociopolitical Dynamics of Religion", *Method &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14/3-4(2002). Harvey Whitehouse, "Implicit and Explicit knowledge in the Domain of Ritual." in Ilkka Pyysiäinen and Veikko Anttonen (eds.), *Current Approaches in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London: Continuum, 2002). Harvey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us transmission*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2004) 참조.
- 15) 심리학과 인류학이 인지종교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Jensine Andresen (ed.), *Religion in Mind: Cognitive Perspectives On Religious Belief, Ritual, and Experience*, 1-44쪽. Armin W. Geertz, "Cognitive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347-399쪽 참조.

계를 마음의 인지작용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동안 특정한 전통의 자료의 해석에 매달렸던 종교학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편적인 이론적 체계의 구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촘스키(N. Chomski)와 그 후예들이 통사론적 차원에서 개별언어의 표면적 복잡성 아래 그러한 다양성을 일반화할 수 있는 보편문법의 가능성을 증명한 것에 의거하여, 인지종교학자들은 종교를 언어처럼 규정할 수 있다고 믿고 종교의 보편문법을 찾고자 하였으며,¹⁶⁾ 이러한 보편적 이론 체계의 구축을 인지적 측면에서 심리와 문화를 연결시킴으로써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신경생물학 혹은 인지심리학적 토대에 근거하여 종교적 사유 개념과 행위 체계를 제시하고, 인지인류학의 구도를 활용하여 종교성의 양태를 사회문화적 역동성과 연결시켜서 체계를 완성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체계 구축은 특정사례에 맞지 않는 면이 종종 발견되지만, 이론의 적용 과정에서 신경생물학, 인지심리학, 인지인류학의 개념과 이론적 구도를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 인지종교학의 이론적 특징

“인간은 무한과 유한, 순간과 영원, 자유와 필연의 종합이다.”
(키에르케고르)

인지종교학은 기존의 종교연구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이론적 차이를 보인다.

첫째, 미국의 종교현상학자 엘리아데(M. Eliade, 1907-1983)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주류 종교학이 현상학과 해석학을 통해서 종교의 현상적 측면에 대한 기술(description)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추구하는 공감적 해석(interpretation)에 중점을 둔 반면, 인지종교학은 객관적 설명을 주장하는 사회과학적 종교연구의 전통을 인지과학의 논리와

16) E. Thomas Lawson, “Towards a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참조.

방법에 따라 전개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전자가 종교의 독자성(sui generis)을 존중하면서 환원주의(anti-reductionism)를 내세우는 반면, 후자는 학문적 객관성과 보편성을 위해서 환원주의(reductionism)가 불가피하다고 본다.¹⁷⁾ 따라서 인지종교학 역시 종교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지종교학에서 설명을 위해 환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종교의 독자성에 대한 고려는 좀더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보편적 구조와 개별적 현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서구사상사에서 구조주의와 실존주의/현상학/해석학의 논쟁을 통해 많은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인지종교학 역시 지나치게 체계완결적인 성격을 고집할 경우에는 개별성이나 창조성에 대한 의미있는 설명이 힘들게 된다. 구조주의가 후기 구조주의로, 모더니즘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수정되는 측면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종교현상은 그저 몇가지 유형의 끊임없는 반복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종교 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문화 일반에도 적용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론의 구성이나 검증과정에서 해석학적 종교현상학과 체계적 인지종교학이 상호보완하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를 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지종교학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설명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사회학이나 인류학 등 기존의 사회과학적 설명이 종교를 주로 사회나 문화의 차원에서 다루는 반면, 인지종교학은 종교를 마음의 차원으로 환원하여 종교가 두뇌 기능의 부산물(by-products)이라는 측면에서 종교와 연관된 인지의 메커니즘을 연구한다.¹⁸⁾ 안드레센(J. Andresen)이 편집

17) 강돈구, 현대 종교이론의 쟁점 -종교학의 非宗教化를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11(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2), 79-105쪽. 박종천, 「종교에 대한 인간주의적 접근과 종교학적 환원 -Daniel L. Pals의 논의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9(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3), 209-227쪽.

18) Pascal Boyer, "Religious Thought and Behavior as By-Products of Brain Func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7/3(2003), 119-124쪽. Ilkka Pyysiäinen, "Amazing Grace: Religion and the Evolution of the Human Mind", in Patrick H. McNamara (ed.), *Where God and Science Meet: How Brain and*

한 인지종교학 서적의 제목인 『마음 속 종교』(Religion in Mind)는 그러한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이는 진화론적 생물학, 신경생리학, 인지심리학, 뇌과학 등의 자연과학적 연구성과가 인지종교학의 이론적 출발점이 됨을 뜻한다. 만약 전통적인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을 전제한다면, 인지종교학은 ‘문화’를 ‘자연’으로 환원하는 일종의 ‘자연주의적 설명’(naturalistic explanation)인 셈이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자연주의적 설명은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신경생리학(neurophysiology)이 우리에게 사회적-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 인지(cognition)가 관념의 역사는 물론, 역사적 과정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는 뉴런(neuron)으로부터 꾸란(Qu'ran)에 이를 수 있는가?”²⁰⁾

위의 비평은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자연의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때 부딪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 이를 통해 생물학 혹은 신경생리학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인지심리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 점차 그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지종교학은 내용을 다루지 않고 형식을 다루기 때문에 보편적인 종교의 문법체계를 구축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왜 특정한 형태의 역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취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종교사적 접근에서 인지종교학적 이론에 이르는 상향식 이론 구성 혹은 귀납적 방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지종교학은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Evolutionary Studies Alter Our Understanding of Religion, vol. I: *Evolution, Genes, and the Religious Brai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2006) 참조.

19) Leo Näreaho,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Philosophical Observations”, *Religious Studies* 44(2008), 83-98쪽.

20) Armin W. Geertz, “Cognitive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347쪽.

거기에 깃들여 있는 마음의 형식적 특징에서 보편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종교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언제나 마음의 인지작용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상이한 문화 혹은 사회의 형태가 그에 대응하는 특정한 마음의 인지작용에서 비롯된 국면만을 살피면, 그 역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을 놓칠 수 있다. 특정한 문화 혹은 사회의 형태 역시 특정한 마음의 인지작용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종교는 마음과 사회문화가 상호영향을 주는 역동적인 환류체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인지와 행위의 주체가 지닌 마음과 몸, 개인과 사회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상호규정하는 환류체계를 가정하고 그 체계 내의 다양한 방향성을 탐색하면 인지종교학의 이론이 훨씬 더 풍부하게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발제이론의 가능성을 인지종교학에 적극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인지종교학의 중요 이슈들

1) 종교적 표상과 인지최적화효과

인지종교학에서 종교는 특별히 다른 것과 구분되는 고유한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 따라 부차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이 분야의 선도적 학자인 파스칼 보이어(Pascal Boyer)는 종교를 인간의 독자적인 자질로 보는 기존 종교학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²¹⁾ 20세기 종교학의 주류였던 해석학적 종교현상학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fact)과 ‘현상학적 판단중지’(epoché)와 ‘공감적 감정이입’(Einführung)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의미’(meaning)를 구분했고, 그 가운데서 후자를 해석하는 것을 종교학의 기본 영역으로 삼았으나, 보이어를 중심으로 한 인지종교학자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전복시켰다. 이는 낭만주의적 종교연구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전개했던 기존의 사회과학적 종교연구보다

21) 주석 13) 참조.

훨씬 더 철저한 것이다.

나아가 보이어는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 이후 특별한 사람들의 신비경험(mystical experience)을 연구하던 기존의 종교심리학적 연구에서 벗어나 종교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 구조 자체를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달리 말하면, 종교적 개념의 형성에 앞서 암묵적인 심리체계가 존재하므로, 암묵적 믿음(implicit belief)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추론체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현적 믿음(explicit belief)의 형성과 구축은, 암묵적 인지 체계가 자연적으로 작동하고 문화교차적으로 재현되는 작용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흔히 명제화된 교리보다는 그 아래 움직이고 있는 외현적 믿음에 대한 인지적 연구가 중요하다.

의식의 표면에 드러나는 특정한 개별정보다는 의식의 심층에서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무의식적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인지체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보이어에 의하면, 종교적 사고와 행위는 인간 역사와 문화를 통틀어 일반적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독특한 인지 체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종교의 자연성 테제’(the Naturalness of Religion Thesis)라고 한다. 이러한 테제는 종교에 대한 설명은 그것을 위한 특수한 인지적 자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지적 자원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보이어의 주장이다. 그는 종교적 표상과 일반적 표상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하여 흔히 신이나 유령 등으로 표상되는 초자연적 존재(supernatural agents)도 일반적인 인지구조의 방식에 따른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gods) 혹은 영(spirits) 개념을 만드는가? 보이어는 신 개념은 약육강식의 원시시대에 생존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잠재의식에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리잡은 기억이 신 혹은 영의 개념으로 발전해 나갔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러한 초자연적 존재는 ‘직관적 존재론’(intuitive ontology)의 범주에 대한 기대치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도 그 가운데서 어떤 특정 부분만을 부정하거나 초월하는 반존

재론적-반직관적 특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인간처럼 의지와 감정과 지성이 있는 신의 초자연적 존재를 상정하면서도 대신 팔다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일반적으로 통과할 수 없는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면 신이나 영의 개념이 완성된다.

보이어의 관점에 의하면, 세계가 어떠해야 한다는 기본적 기대를 보여주는 직관적 존재론을 최소한도로 침해했을 때 이른 바 종교적 개념이 성립된다. 마치 컴퓨터에 기본설정값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추론의 기대치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중요한 대상에 대해 일반적인 직관적 기대(intuitive expectations)를 조금 ‘비틀기’(tweak)함으로써 최소한도로 반직관적인(MCI: Minimally Counter-intuitive) 개념을 표상하고 그것을 통해 주의를 끌면서 설명, 예측, 추론을 생성하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²²⁾ 최소한도로 반직관적일 수록 기억과 전달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너무 지나치게 반직관적이거나 너무나 직관적이면, 기억과 전달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최소한도의 반직관성이 종교성의 특질이 된다.²³⁾ 화이트하우스(Harvey Whitehouse)는 일반적인 직관에 반하는 특성이 최소화될 때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좋은 개념이 된다는 것을 ‘인지최적화효과’(cognitive optimum effect)로 명명하기도 했다.²⁴⁾ 요컨대, 신 경험은 결코 개념적인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최소한도로 반직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개념들은 직관적 존재론의 가설을 충족시키는 것과 그 개념이 흥미롭게 만들고 풍부한 추론적 잠재력을 지니도록 충분한 위반을 하는 것 사이의 균형에 충격을 가하는데, 이 균형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기억하거나 이야기하며, 재생산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²⁵⁾ 최소한도로 반직관적인 행위주체는 광범한 정신적

22) Pascal Boyer, “Religious Thought and Behavior as By-Products of Brain Function”, 119쪽. Justin L. Barrett, *Why Would Anyone Believe in God?*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2004), 119-120쪽.

23) Ilkka Pyysiäinen and Marjaana Lindeman and Timo Honkela, “Counterintuitiveness as the hallmark of religiosity”, *Religion* 33(2003), 341-355쪽.

24) Harvey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us transmission*, 189-192, 195-203쪽.

장치를 자극하고, 인지구조는 환경 속에서 그러한 지향적 주체의 행위 (agency)를 빨리 검색하는데, 이러한 생존-강화 성향은 많은 상황 속에서 초인간적 행위주체 개념의 산출을 독려하게 되며, 이에 따라 최소한도로 반직관적인 행위주체 개념은 더욱 더 확산된다.

한편, 그 이상의 사고와 행동이 발생할 때 정보를 참되다고 간직하는 인지체계의 상태를 뜻하는 믿음에는 ‘암묵적 믿음’과 ‘외현적 믿음’의 구분 외에도 ‘무반영적 믿음’(nonreflective belief)과 ‘반영적 믿음’(reflective belief)의 구분이 있다. 바렛에 의하면, 무반영적 믿음은 반영적 믿음의 디폴트(default)로서 작동하고, 반영적 믿음을 개연성 있게 만들며, 기억과 경험을 형성한다.²⁵⁾ 스퍼버(Dan Sperber)는 무반영적 믿음을 직관적 믿음(intuitive belief)으로 표현한 바 있다.²⁷⁾ 직관적 믿음이 “둘은 두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는 명제처럼 직관적으로 참이라고 수용되는 믿음으로서 자동적이고 무의식인 지각과 추론의 과정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라면, 반영적 믿음은 “ $E=mc^2$ ”, “신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하다” 등의 명제처럼 과학자나 신학자들의 설명이 옳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서 직관적 믿음의 타당한 맥락 가운데 각인된 표상의 해석이다.²⁸⁾ 무반영적 믿음이 의식적으로 견지되지 않고 정신적 장치(mental tools)의 기능에 의해 생성되는 믿음이라면, 반영적 믿음은 의식적으로 견지되면서 의식적 반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믿음이다. 무반영적 믿음은 각성

25) Justin L. Barrett, *Why Would Anyone Believe in God?*, 43-44쪽.

26) Justin L. Barrett, *Why Would Anyone Believe in God?*, 11-16쪽.

27) Dan Sperber, *Explaining Culture: A Naturalistic Approach* 참조.

28) reflective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영의 뜻이 아니다. 이 용어는 Sperber가 intuitive라는 용어의 상대적 개념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주체의 해석학적 성찰의 차원이자기보다는 주체가 권위로 믿는 지식을 반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반영으로 번역하였다. 반영은 합리적 근거에 따를 수도 있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종교적 믿음은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번역어의 선택은 구형찬씨의 견해에 따랐음을 밝혀 둔다. 자세한 설명은 Ilkka Pyysiäinen, “Cognition, emotion, and religious experience”, in Jensine Andresen (ed.), *Religion in Mind: Cognitive Perspectives On Religious Belief, Ritual, and Exper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특히 72쪽 참조.

(awareness)이 없이도 일상적 활동을 이끌며 또한 의식적 마음을 자유롭게 해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직관적 지식은 무반영적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반영적 믿음은 무반영적 믿음의 무의식적 목록(tabulation)을 통해서 발생한다.

[표 1] 반영적 믿음과 무반영적 믿음²⁹⁾

반영적 믿음	무반영적 믿음
의식적/외현적으로 견지됨	의식적이거나 외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신중하게, 종종 천천히 산출됨	자동적이고 빠르게 산출됨
많은 정신적 장치들의 산출물과 기억을 이용함	하나 혹은 소수의 연관 정신적 장치에 의해 산출됨
상관되는 행동과 일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외현적 진술이 이 믿음의 전형적인 좋은 증거다.	이 믿음의 좋은 증거는 전형적으로 행동적이다.
그룹 내부의 변이를 위한 잠재력이 큼	그룹 내부의 균일성이 전형적으로 강함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무반영적 믿음 혹은 직관적 믿음은 마음에서 쉽게 산출될 수 있을 만큼 자동적이고 그에 따라 행동으로 바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신학적으로 성찰을 할 때 신은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지 않는 존재로 표상되지만,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일반인들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있는 존재로 표상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³⁰⁾ 이런 경향 때문에 무반영적 믿음은 반영적 믿음과는 달리 최

29) Justin L. Barrett, *Why Would Anyone Believe in God?*, 9쪽.

소한도로 반직관적인 인지최적화효과로 신인동형설적 신(anthropomorphic gods) 개념을 나타내기 쉽다. 로슨과 맥컬리는 종교적 의례가 일상적인 행위 표상에 의존하면서 행위자가 특별한 자질을 지니도록 직관적 존재론의 범주를 최소한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최소한도로 반직관적인 정신적 표상이라야 기억과 전달에 용이하고, 종교적 개념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인지종교학자들의 결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그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개념과 그렇지 않은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도 수많은 신 개념간의 차이를 읽어내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 또한 종교 뿐만 아니라 모든 상상적 표상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개념과 상상적인 비종교적 개념의 차이를 분명하게 부각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종교적 행위와 의례

종교적 표상의 최소한도의 반직관적 특성은 인지적 차원 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바렛과 몰리(Brian Malley)는 마음의 인지적 표상 구조(cognitive representational structures)에 근거한 반직관적 행위(counterintuitive actions)의 체계적 유형론을 전개하면서 아래와 같은 분류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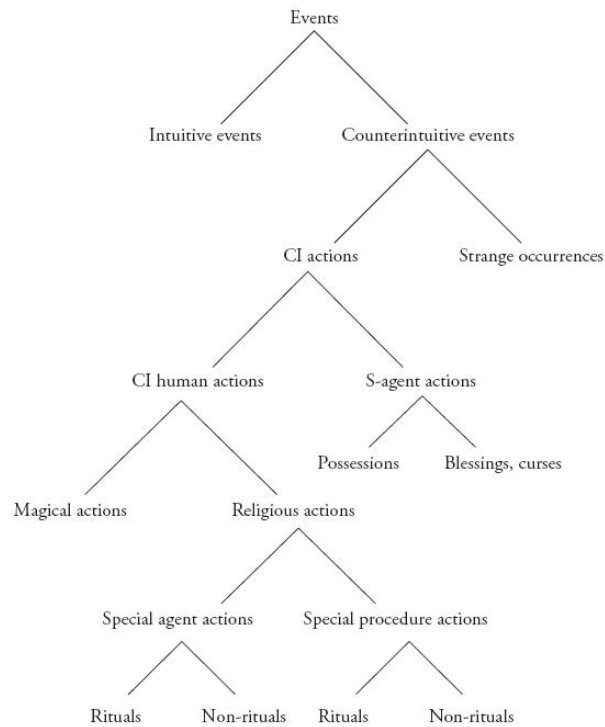
바렛과 몰리에 따르면, 행위의 분류체계는 반직관적 사건, 그것도 지향적 행위주체가 있는 반직관적 행위일 때 종교적 행위 혹은 준종교적 행위의 범주에 들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행위의 분류체계상 (1)반직관적 사건은 직관적 사건보다 훨씬 더 주의를 끌고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추론을 혼동시키기 때문이다. 사건은 반드시 행위주체가 전제되는 행위(action)와 구분된다. (2)일반적으로 반직관적인 사건은 행위로

30) E. Thomas Lawson and Rbert N. McCauley, *Rethinking Religion: Connecting Cognition and Culture* 참조.

31) Justin L. Barrett and Brian Malley, "A Cognitive Typology of Religious Actions",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7 (2007), 201-211쪽.

해석되지만, 지향적 행위주체(intentional agent)에 의해 고안된 행위의 결과와 구별해야 한다. 행위로 표상되지 않는 반직관적 사건은 신화, 민담, 종교 등의 문화적 형태에서 역할이 적다. 다시 반직관적 행위는 세간적 행위주체(mundane agents)와 초세간적 행위주체(supermundane agents)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표 2] 반직관적 행위의 체계적 유형



또한 반직관적 인간적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초세간적 행위주체에 대한 호소에 의거하여 작동하는 경우와 초세간적 행위주체에 대한 호소나 관여 없이 일어난 경우는 각각 종교적 행위와 주술적 행위로 구분된다. 안

전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포세이돈에게 황소를 희생으로 바치는 사제라든가, 죽은 적의 힘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례적으로 먹는 승리한 전사 등은 세간적인 행위주체가 반직관적 인과관계를 초래하기 위해 의도한 주술적 방식이지만, 세간적인 행위자가 전혀 없이 일어난 사건을 지향성에 의한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경우는 5월에 내리는 눈을 신의 행위로 표상하거나 병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사건을 신적인 개입으로 돌리는 것처럼 모두 세간적 중개 없이 초세간적 행위가 일어나면 기적(miracle)이다. 이에 비해 신들림(possessions)은 세간적인 인간적/동물적 매개를 지닌 반직관적인 초세간적 행위다. 그 행위는 세간적 행위주체에 의해 수행되지만 참관자는 그것을 초세간적 행위주체에게 돌린다.

한편, 로슨(E. Thomas Lawson)과 맥컬리(Rober N. McCauley)는 특수한 행위자의 행위(special agent actions)와 특수한 절차의 행위(special procedure actions)를 구분함으로써 의례적 행위의 논리적 구조를 밝혔다.³²⁾ 그러나 그들은 많은 의례들의 정신적 표상의 한 부분이 그것의 목적임을 간과했다. 이에 비해 바렛과 몰리는 그것을 보완했다. 예컨대 희생제 의는 종종 신들이나 조상들을 달래기 위해서 수행된다.

초인간적 행위주체가 어떻게 의례의 행위 구조와 연결되는가를 많은 종교인들이 자각하지 못한다. 특수한 행위주체는 종교적 행위의 구조 속에서 참여자가 인지적으로 표상하는 바 그 행위의 목적을 통해 연관된다. 그러한 의례들은 특수한 절차 행위의 특성을 지닌다. 특수한 행위주체의 행위는 가역적이지만, 특수한 절차의 행위는 가역적이지 않다. 전자는 영구적인 효과를 지니지만, 후자는 일시적 효과만 가진다. 동일한 인구 내에서 전자는 후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각적 구경거리(sensory pageantry)를 전달한다.

인지종교학적 행위 유형론은 행위를 인지구조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특히 지향적 행위주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례, 주술, 신들림, 기적 등의 체계적인

32) 주석 12) 참조.

분류는 새로운 설명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다만 의례와 의례가 아닌 것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많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례학에서 자주 논의되는 의례의 정의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3) 종교성의 양태와 사회문화의 역동적 구조

종교적 실천은 일반적으로 상이한 두 가지 종류의 역동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³³⁾ 어떤 종교적 실천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열정적인데, 그런 실천들은 드물게 수행되고 아주 자극적일 수 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어떤 다른 형태의 종교적 행위들은 훨씬 덜 자극적인 경향이 있다. 그것은 매우 반복적이고 “관례화된” 것이다.

화이트하우스에 의하면,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은 서로 다른 종교성의 두 가지 양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1)반복적인 의례는 스크립트(scripts)로 의미기억(semantic memory)에 부호화(encode)되는 반면, 간헐적인 의례는 특별한 사건(special events)으로 일화기억(episodic memory)에 부호화(encode)된다. (2)의미기억에 유비되는 종교성은 교리적 양태(doctrinal mode)를 지니고, 일화기억에 유비되는 종교성의 양태는 이미지적 양태

33) 화이트하우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막스 베버(1930, 1947)는 관례화된 종교적 형태와 카리스마적인 종교적 형태를 구별했고, 루스 베네딕트(1935)는 아폴로적인 실천과 디오니소스적 실천을 대조시켰으며, 에른스트 겔너(1969)는 도시 중심지에 자리잡은 이슬람의 문자적 형태들과 시골 부족민들의 이미지 기초적이고 응집력있는 실천들 사이의 대립을 탐구했다. 잭 구디(1968, 1986)는 문자종교와 비문자종교의 좀더 일반적인 이분법을 발전시켰으며, 빅터 터너(1974)는 ‘코뮤니타스’와 ‘구조’로 명명했던 대조적 특성을 드러내는 풍요의례와 정치의례를 구분했다. 루이스(1971)는 중심적 켈트와 주변적 켈트를 대비하였고, 리하르트 베르브너(1977)는 지역적 켈트와 소규모 공동체의 켈트를 대조시켰으며, 프레드릭 바르트(1990)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퍼진 ‘구루’ 통치와 종교적 관계가 집합적인 의례 경험에 내재한 ‘마술사’ 통치를 구분했다. 이것들은 그저 종교적 경험과 실천의 양상에서 보이는 근본적인 상이성을 그려내는 많은 시도 중 하나일 뿐이다.” 상세설명은 Harvey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 Towards a Cognitive Explanation of the Sociopolitical Dynamics of Religion”, 293-315쪽 참조. 이하 화이트하우스의 이론적 설명은 주로 이 논문과 그 확대판인 *Modes of Religiosity: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us transmission*에 따른다.

(imagistic mode)를 가진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교제사라면,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속의 굿이다. 전자(DMR)가 감정적으로 주입되거나 실천의 발생 빈도에 좌우되지 않는 반면, 후자(IMR)에서 기억의 전달은 경험의 트라우마적/감정적 성질에 의해서 마음에 불타오르는 자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들과 연계된다.

화이트하우스는 기억의 종류와 종교성의 양태를 연결시키고, 그러한 관계가 의례적 실천에도 반영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억과 종교성과 의례가 마음과 몸의 연결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주장이다.

이 이론은 기억(memory)과 동기부여(motivation)의 관계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1)종교적 신앙과 의례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기억) (2)사람들은 이런 신앙과 의례를 전달하는 데 의욕이 있어야 한다.(동기부여)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의례를 하는가를 기억해야 그것이 전달될 수 있고 종교 전통도 정립될 수 있다. 동시에 신앙과 의례는 전달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이 있어야 변형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런데 망각의 실제적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종교적 전달(religious transmission)의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반복은 동기부여를 회미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빈번한 반복에 의해 어려운 개념, 교리, 이야기 등을 익힐 수 있고, 결국 그것들을 기억하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설교를 듣고 동일한 의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몹시 지루한 일이고, 지루함은 지속적 전달의 동기부여에 위험이 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종교성의 두 가지 양태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1) 종교성의 교리적 양태

- ① 빈번한 반복은 종교적 가르침을 위한 의미기억을 활성화한다.
- ② 종교적 가르침을 위한 의미기억과 종교적 지도자들의 현존은 상호

강화하는 특성들이다.

- ③ 종교적 지도자들의 현존은 정통성 체크를 위한 요구를 암시한다.
- ④ 빈번한 반복은 종교적 의례를 위한 암묵기억에 이르게 한다.
- ⑤ 종교적 의례를 위한 암묵기억은 의미기억 가운데 권위있는 가르침의 잔존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 ⑥ 정통성 체크를 위한 요구는 종교적 집중화를 고무한다.
- ⑦ 종교적 가르침을 위한 의미기억은 익명의 종교공동체에 이르게 한다.
- ⑧ 종교적 지도자들의 현존은 광범하게 퍼지는 종교에 이바지한다.

(2) 종교성의 이미지적 양태

- ① 빈번한 반복과 고도의 각성은 일화기억을 활성화한다.
- ② 일화기억의 활성화는 자발적인 해석학적 반응을 유발한다.
- ③ 자발적인 해석학적 반응은 종교적 표상의 다양성에 이르게 한다.
- ④ 자발적인 해석학적 반응과 표상적인 다양성은 역동적 리더십을 저지한다.
- ⑤ 역동적 리더십의 결여, 집중화의 결여, 정통성의 결여는 상호 강화한다.
- ⑥ 고도의 각성은 강렬한 유대를 촉진한다.
- ⑦ 강렬한 유대와 일화기억은 국지적/배타적인 공동체를 촉진한다.
- ⑧ 국지적/배타적인 공동체와 역동적 리더십의 결여는 확산/유포를 저지한다.

위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화이트하우스가 마음의 심리적 차원을 몸의 행위적 차원을 거쳐 사회문화적 차원까지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두 가지 종교성의 양태는 그에 걸맞는 사회문화적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교리적 양태의 종교성을 지닌 사회는 대규모 포용적인 공동체로서 역동적 리더십과 확산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는 반면, 이미지적 양태를 가진 사회는 소규모 배타적인 공동체로서 수동적 리더십과 열정

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설명은 사회적 제도화의 차이에 따라 교회(Church)와 교파(Sect), 컬트(Cult)를 나누는 종교사회학적 분류와 통한다. 화이트하우스는 종교성의 양태와 대응하는 심리적/사회정치적 특색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표 3] 종교성의 두 가지 양태와 심리적/정치사회적 특색³⁴⁾

종교성의 특색	변수	교리적 양태	이미지적 양태
심리적 특색	전달 빈도	높다	낮다
	각성(환기)의 수준	낮다	높다
	주요 기억 체계	의미론적 도식과 암묵적 스크립트	에피소드적/ 단발적 기억
	의례적 의미	학습적/획득적	내적으로 생성됨
	게시의 기술	수사학적, 논리적 통합, 내러티브	도상성, 다의적, 다가적
사회정치적 특색	사회적 유대	확산적	열정적
	리더쉽	역동적	수동적/부재
	포용성/배타성	포용적	배타적
	확산	빠름, 효율적	느림, 비효율적
	규모	대규모	소규모
	일치 정도	높다	낮다
	구조	중앙집중적	비중앙집중적

이러한 설명은 마음과 몸과 사회를 포괄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대답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지만, 종교사 속의 수많은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가설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³⁵⁾ 거대담론의 장점과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34) Harvey Whitehouse, *Modes of Religiosity: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us transmission*, 74쪽.

35) 화이트하우스의 명제를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다양하게 검증한 저술로는 Harvey Whitehouse and James Laidlaw (eds.), *Ritual and Memory: Toward a Comparative*

구체적인 개념들과 가설들이 명료한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성으로 보인다.

4. 인지종교학에 대한 비평적 전망

지금까지 인지종교학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주요 연구들을 일별해 보았다. 인지종교학은 종교학에 인지과학의 이론적 설명을 도입하여 체계적 개념 분류와 보편적 이론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했다. 아직은 학문의 초창기라서 가설 수준의 문제제기에 머무는 경우도 많고, 이론 체계 내부에서 정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게 있으며, 구체적인 종교 전통의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면도 보인다. 그러나 인지과학의 성과를 도입하여 종교현상을 관찰하는 과학적 척도의 설정, 검증가능한 가설의 제시, 이론의 구성과 검증을 통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등을 통해 특정 종교전통을 넘어서서 종교 일반을 다룰 수 있는 문법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부각되는 비교종교학의 이론적 논의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다.

현재 인지종교학이 지닌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와 환원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단순히 인지적 차원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생물학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을 아우르는 인지와 행위의 역동적인 문화체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각 차원의 논리적 연결은 신경생물학, 인지심리학, 인지사회학/인지인류학의 실험적 데이터 집적과 이론적 체계 재구성을 통해 가능하기도 하지만, 종교현상을 경험하고 창출하는 인지와 행위의 주체(agent)가 지닌 지향성과 개별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요청된다. 그렇지 못하면 예술, 기타 다른 문화현상과 구별되

Anthropology of Religion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2004). Harvey Whitehouse and Robert N. McCauley (eds.), *Mind and Religion: Psychological and Cognitive Foundations of Religiosity*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2005) 참고.

는 종교의 특질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카소의 그림을 생각해 보라. 아무도 그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고 예술이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구축된 인지종교학적 구도에 따르면 그것은 종교적 표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최소한도로 반직관적인 종교적 개념에 대한 설명은 종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와 상상(imagination)이 동원되는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인지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설명은 가능해도, 종교의 변별적 특성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인지, 기억, 감정 등 다양한 마음의 작용을 정신적 표상의 층위에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지종교학은 주로 인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최근 감정이나 기억 등 다양한 측면과 연계된 설명의 단초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특히 비합리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몽주의 전통의 후손인 종교학이 합리주의와 충돌하는 낭만주의적 종교 이해를 완전히 외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루돌프 오토(R. Otto)는 기독교의 종교 경험을 누미노제(das Numinöse) 경험으로 명명하면서 그 속성을 매혹적인 끌림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신비의 양가감정으로 서술했는데, 이것이 신 개념에 적용되면 정의의 신과 사랑의 신의 역설적 공존으로 나타난다. 부정적 신과 모성적 신이라고 표현해도 좋은 이 두가지 대립되는 신의 이미지가 역설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신의 초월적 근원성의 표상인데, 인지종교학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신의 표상을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일 수 없다는 직관을 위배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종교적 개념이 반직관적이라는 명제 자체라기보다는 종교에서 나타나는 반직관적 양상의 유형과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전자가 뼈대가 된다면 후자는 살과 피를 이룬다. 이런 맥락에서 인지종교학은 해석학적 종교학과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인지종교학이 지나치게 서구 기독교 중심적인 모

텔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힌두교나 불교 등 비(非)기독교문화권의 자료가 인지종교학의 자료로 검토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종교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듯이 신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 유교나 불교의 일원론적 개념을 어떻게 인지종교학적 개념 체계로 다듬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인지종교학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신을 상정하지 않은 종교적 개념 체계가 신의 변형에 해당하는 초월적 행위주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인지종교학적으로 아직까지 진지하게 탐구된 적이 없는 주제다. 또한 이러한 종교전통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도로 반직관적이라는 종교 개념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종교사와 인지종교학의 긴밀한 상호보완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인지종교학자 바렛의 지적처럼 “인지종교학의 통찰은 (역사와 비교의 필터가 되는) 종교사와 비교종교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³⁶⁾ 그러나 이것만으로 족한 것은 아니다. 종교사와 비교종교학의 통찰 역시 인지종교학의 작업에 반영되어야 한다. 종교는 시간의 변화와 지역적 차이를 지닌 채 마음과 몸, 개인과 사회를 아우르는 역동적 문화체계로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지종교학은 종교를 두뇌활동의 부산물로 산출되는 부수적 실재로 보면서 역사적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을 망각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두뇌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 마음과 세계를 연결시키는 신체, 신체가 활동하는 환경으로서의 사회가 시간과 공간의 축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구성적 실재로 설명할 때 좀더 설득력 있는 인지종교학의 미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학교)

36) Justin L. Barrett, “The Naturalness of Religious Concepts: An Emerging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in Peter Antes and Armin W. Geertz and Randi R. Warne (eds.),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Vol.2: Textual, Comparative, Sociological, and Cognitive Approaches* (Berlin: Walter de Gruyter, 2004), 415쪽.

참고문헌

- 강돈구, 「현대 종교이론의 쟁점 -종교학의 非宗教化를 중심으로-」, 『종교학 연구』 11,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2, 79-105쪽.
- 구형찬, 「종교연구의 방법론적 범주에 관한 고찰: 비교, 분류, 설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종천, 「종교에 대한 인간주의적 접근과 종교학적 환원 -Daniel L. Pals의 논의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9,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3, 209-227쪽.
- Andresen, Jensine (ed.), *Religion in Mind: Cognitive Perspectives On Religious Belief, Ritual, and Exper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Austin, James H., *Zen and the Brain: Toward an Understanding of Meditation and Consciousness*,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8.
- Bainbridge, William Sims, *God from the Machine: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of Religious Cognition*,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2006.
- Barrett, Justin L.,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What Is It and Why Is It?”, *Religion Compass* 1, 2007, 1-19쪽.
- _____, “Exploring the Natural Foundations of Relig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4, 2000, 29-34쪽.
- _____, “The Naturalness of Religious Concepts: An Emerging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in Antes, Peter and Armin W. Geertz and Randi R. Warne (eds.),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Vol.2: Textual, Comparative, Sociological, and Cognitive Approaches*, Berlin: Walter de Gruyter, 2004, 401-418쪽.
- _____, *Why Would Anyone Believe in God?*,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2004.
- Barrett, Justin L. and Brian Malley, “A Cognitive Typology of Religious

- Actions”, *Journal of Cognition and Culture* 7, 2007, 201-211쪽.
- Barrett, Justin L. and Jonathan A. Lanman, “The science of religious beliefs”, *Religion* 20, 2008, 1-16쪽.
- Boyer, Pascal, *Religion Explained: The Evolutionary Origins of Religious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2001.
- _____, “Religious Thought and Behavior as By-Products of Brain Func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7/3, 2003, 119-124쪽.
- _____, *The Naturalness of Religious Ideas: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Boyer, Pascal and P. Liénard, “Why ritualized behavior? Precaution Systems and action parsing in developmental, pathological and cultural ritual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9, 2006, 595-650쪽.
- Cohen, E., *The Mind Possessed: The Cognition of Spirit Possession in the Afro-Brazilian Religious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Cooper, Robin, *The Evolving Mind: Buddhism, Biology, and Consciousness*, Birmingham: Windhorse Publications, 1996.
- Geertz, Armin W., “Cognitive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in Antes, Peter and Armin W. Geertz and Randi R. Warne (eds.),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Vol.2: Textual, Comparative, Sociological, and Cognitive Approaches*, Berlin: Walter de Gruyter, 2004, 347-399쪽.
- Guthrie, S. E., *Faces in the Clouds: A New Theory of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Lawson, E. Thomas, “Towards a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Numen* 47/3, 2000, 338-349쪽.
- Lawson, E. Thomas and Robert N. McCauley, *Rethinking Religion: Connecting Cognition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Bringing Ritual to Mind: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Cultural For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Light, T. and B. Wilson (eds.), *Religion as a Human Capacity: A Festschrift in Honor of E. Thomas Lawson*, Leiden: Brill, 2004.
- Näreaho, Leo,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Philosophical Observations”, *Religious Studies* 44, 2008, 83-98쪽.
- Pyysiäinen, Ilkka, *How Religion Works: Towards a New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Leiden: Brill, 2001.
- _____, “Cognition, emotion, and religious experience”, Jensine Andresen (ed.), *Religion in Mind: Cognitive Perspectives On Religious Belief, Ritual, and Exper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Magic, Miracles, and Religion: A Scientist's Perspective*,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2004.
- _____, “Amazing Grace: Religion and the Evolution of the Human Mind”, in Patrick H. McNamara (ed.), *Where God and Science Meet: How Brain and Evolutionary Studies Alter Our Understanding of Religion*, vol. I: *Evolution, Genes, and the Religious Brai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2006.
- Pyysiäinen, Ilkka and Veikko Anttonen (eds.), *Current Approaches in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London: Continuum, 2002.
- Pyysiäinen, Ilkka and Marjaana Lindeman and Timo Honkela, “Counterintuitiveness as the hallmark of religiosity”, *Religion* 33, 2003, 341-355쪽.
- Sperber, Dan, *Rethinking Symbo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_____, *Explaining Culture: A Naturalistic Approach*, Oxford: Blackwell, 1996.
- Tremlin, T., *Minds and Gods: The Cognitive Foundations of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Thagard, Paul, *Mind: Introduction to Cognitive Science*, 2nd edi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5.
- _____, “The Emotional Coherence of Religion”, *Journal of Cognition and*

- Culture* 5, 2005, 58-74쪽.
- Thagard, Paul (ed.), *Mind Readings: Introductory Selections on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8.
- Waardenburg, Jacques (ed.), *Class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2 vols, The Hague: Mouton, 1973.
- Whaling, Frank(ed.), *Contemporary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2 vols, Berlin: Mouton, 1983/1995.
- Whitehouse, Harvey, *Inside the Cult: Religious innovation and transmission in Papua New Guinea*, Oxford: Clarendon Press, 1995.
- _____, *Arguments and Icons: Divergent modes of religio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Modes of Religiosity: Towards a Cognitive Explanation of the Sociopolitical Dynamics of Religion", *Method &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14/3-4, 2002, 293-315쪽.
- _____, "Implicit and Explicit knowledge in the Domain of Ritual." in Ilkka Pyysiäinen and Veikko Anttonen (eds.), *Current Approaches in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London: Continuum, 2002.
- _____, *Modes of Religiosity: a cognitive theory of religious transmission*,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2004.
- Whitehouse, Harvey and James Laidlaw (eds.), *Ritual and Memory: Toward a Comparative Anthropology of Religion*,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2004.
- Whitehouse, Harvey and Robert N. McCauley (eds.), *Mind and Religion: Psychological and Cognitive Foundations of Religiosity*,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2005.

Religion and Mind

-Recent Issues and Trends of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Jong-Chun Park

This paper introduces recent issues and trends of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CSR) based on theoretical ground of the interdisciplinary cognitive science. I examine some main issues of CSR, such as religious representation and cognitive optimum effect, religious action and ritual, two modes of religiosity and socio-cultural structure. Theoretical trends of CSR and its implications and weaknesses are as follows:

1. CSR presents some scientific explanations of religion in general. Some cognitive scientists of relig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 Naturalness of Religion Thesis, treat religious representations as by-products of brain activity. From this perspective, a religious concept represented by the process of cognition and action is a minimally counter-intuitive(MCI) one among general concepts. It has not a special differentiated peculiarity. Consequently, CRS is faced with reductionism or naturalistic fallacy that reduces culture to nature.

2. CRS links psychological dimension and socio-cultural dimension, thereby making concepts and theories systematically classified and generalized. Human efforts to solve the contradiction between memory and motivation in the process of religious transmission embodies two modes of religiosity. They have their own psychological cognition and socio-cultural structure. However, these hypotheses don't go with historical religious phenomena.

3. CRS in the making is a relatively Christianity-centric model. It is not adequate for explaining non-Christian religions. It's tendency should be modified.

4. Religion is a sort of dynamic feedback system which consists of mind, body, socio-cultural circumstance. This holistic viewpoint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wards more desirable growth of CRS in the future.

Key Words: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CRS), cognition, mind, religion, religious representation, the Naturalness of Religion Thesis, cognitive optimum effect, naturalistic fallacy, reductionism, Minimally Counter-intuitive(MCI), memory, motivation, modes of religiosity

박종천 e-mail: baumannsch@naver.com